

SRI투자의 철학 “나쁜기업 걸러내는게 우선”

〈사회책임투자〉

국민연금, 책임투자 단계적 확대 착하지 않은 기업 투자제한 가능성 환경과과·부패 기업 투자 배제 등 네덜란드·노르웨이, 책임투자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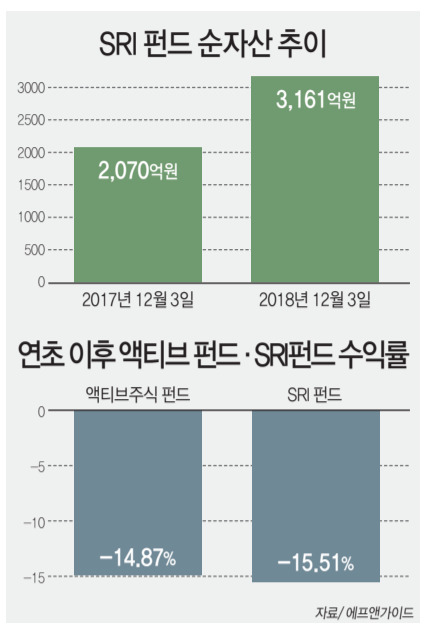
국민연금이 내년부터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른바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SRI)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SRI는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측면에서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을 말한다.

다만 SRI 투자가 기존 지수보다도 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의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보다는 ‘나쁜 기업’을 선별해 내는 전략이 현실적인 사회책임투자라고 조언한다.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RI 펀드 설정액은 2016년 1231억 원에서 현재 3161억 원으로 늘어났다. 사회책임투자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2년 새 배 가까이 몸집을 불린 것이다.

국민연금이 내년부터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을 통해 사회책임투자 규모를



키우는 만큼 기관 및 개인투자자의 투자 포트폴리오도 일부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6조9000억원 수준(위탁 자산의 11.4%)인데 향후 국내 주식 위탁 운용자산 중 책임투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책임투자 규모는 1~2년 내 20%, 3년 내 40%, 5년 내 30%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은 운용전략실 산하의 책임투자팀을 분리해 책임투자실로 승격시키고 인원을 3배 늘렸다. 그만큼 투자전략에 큰 변화를 암시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향후 국민연금이 기본적인 기업의 재무평가 이외에 환경(E), 사회책임(S), 지배구조(G) 등 사회책임투자(ESG)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문제는 수익률 측면에서 ESG 투자 매력도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사회적 책임 투자로 유명한 도미니 임팩트(Domini Impact) 펀드의 수익률은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S&P500) 지수 수익률을 밑돌고 있다. 심지어 술, 도박, 카지노, 무기 등 ‘나쁜 기업’에 투자하는 바이스 펀드(Vice Fund)보다도 낮았다.

국내 사례를 봐도 마찬가지다. 국내에 설정된 SRI 펀드(규모 10억원 이상)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5.51%로 같은 기간 국내 액티브 펀드 평균 수익률(-14.87%)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대대적인 조정보다 ESG 점수가 열등한 ‘나쁜 기업’을 포트폴리오에서 제거하는 책임투자 방법이 현실적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이미 네덜란드, 노르웨이 연기금은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통한 책임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무기생산기업 ▲담배 생산기업 ▲환경과과 ▲아동, 노동 등 인권탄압 ▲온실가스 배출 ▲부패 등을 기준으로 투자대상 기업을 배제하는 방법이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착한 기업으로 모두 채우는 것보다 수익률을 결정짓는 중심 종목은 운용역의 재량으로 구성하고, ESG에서 배제되는 기업을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투자 대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우선 무기, 술, 환경과과, 인권위배 기업을 편출하는 전략이다. MSCI ESG는 환경, 인권 지배구조, 노동권리 등 여러 기준을 통해 개별기업의 ESG 등급(rating)을 1~10으로 평가하는 각 카테고리에서 평가등급이 1로 가장 낮은 기업을 편출하면 된다.

또 지배구조 등급이 하락한 기업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지배구조원은 각 기업의 지배구조는 A~D로 분류한다. 지배구조원은 매년 지배구조 등급을 발표하는데 등급이 하락하면 편출 혹은 비중 축소, 등급이 상승하면 편입 혹은 비중을 확대하는 방법이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KB증권

ELS 등 6종 상품 공모

KB증권은 7일까지 S&P500지수와 H SCEI, Eurostoxx50를 기초자산으로 활용해 최고 연 4.0%(세전)의 수익을 제공하는 KB able ELS 735호(3년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 등 총 6종의 상품을 공모한다.

KB able ELS 735호(3인덱스 퀵 플러스 더블리드 울트라 스텝다운형)는 S&P500지수와 홍콩항셱중국기업지수(H SCEI), 유로스탁스50(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노 낙인(No Knock-In Barrier)구조로 3년 만기에 1개월 및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와 최고 연 4.0%(세전)의 수익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하나금융투자

이자 6% DLS 상품 2종

하나금융투자는 7일까지 유가 변동성을 적극 활용한 리자드 DLS 등 파생결합 상품 총 2종을 모집한다. 두 가지 원유(WTI/BRENT)를 기초자산으로 연 6.00%를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DLS 3102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2년이고, 6개월마다 총 4차례의 상환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홍콩지수(HSCEI), 일본지수(NIKKEI225), 유럽지수(EuroSTOXX 50)를 기초자산으로 연 4.9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9166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DLS 3102회의 모집금액은 20억원이며, ELS9166회는 15억원을 한도로 모집한다. /김문호 기자

상장사 54곳 분기배당 9.1조... 삼성전자 7.2조 규모

상장기업 중간·분기배당 평가

코스피 36곳 전년비 4.5억원 ↑
코스닥 18곳 배당금액 10% 늘어

올해 상장사들의 중간·분기 배당규모가 9조원을 넘어섰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총 54개사가 9조1000억원의 중간·분기 배당을 실시했다.

코스피시장에서는 36개사가 9조1000억원 규모로 중간·분기 배당을 했다. 전년 대비 4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삼성전자의 분기배당 규모가 전년 2조9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4

〈연도별 중간·분기배당 실시 현황〉

(단위: 개사, 회, 억원)

시장	구분	'14	'15	'16	'17 (A)	'18 (B)	증감(B-A)
코스닥	실시회사	11	16	18	21	18	3↓
	실시횟수	11	16	18	21	20	1↓
	배당금액	189	210	255	457	504	47
코스피	실시회사	27	26	23	30	36	6
	실시횟수	27	26	27	41	51	10
	배당금액	4,408	10,447	9,281	46,018	90,556	44,538
	삼성전자	755	1,489	1,416	28,968	72,138	43,170
삼성전자 외 배당금액		3,653	8,958	7,865	17,050	18,418	1,368

자료=금융감독원

조3000억원 가량 증가한 영향이 컸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8개사가 504억원

규모로 중간·분기배당을 실시했다. 회사 수는 전년 대비 줄었지만 배당금액은 10% 가량 늘었다.

/안상미 기자 smahni@

3분기 증권사 실적 23% 급감

금감원, 당기순이익 9576억원

증시침체에 증권사들의 실적이 대폭 악화됐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 55개 증권회사의 당기순이익은 957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3.1% 감소했다. 수수료 수익이 급감했고, 주식관련 이익도 감소폭이 컸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3분기 누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6.8%로 집계됐다. 3분기 중 전체 수수료수익은 2조157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0.3% 감소했다. 주식거래대금 감소로 수탁수수료가 줄었고, 투자은행(IB) 관련 수수료도 감소했다.

자기매매이익은 1조417억원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주식관련

이익은 75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9.7% 감소한 반면 채권관련이익은 1조610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9% 늘었다.

전체 증권회사의 자산총액은 449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0.4% 증가했다. 부채총액은 전분기 대비 0.2% 늘어난 393조6000억원이다.

3분기 중 6개 선물회사의 당기순이익은 5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5% 감소했다. 3분기 누적 ROE는 전년 대비 1.7%포인트 오른 4.7%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회사 순이익이 주식시장 침체와 대내외 경기불안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향후에도 금리 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증시 불안 요인에 따라 수익성 및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소지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전남 영암군 금정면 안노리 산183번지
2. 분묘 기수: 평장된 무연분묘 2기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취득후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 간
5. 안치장소: 곡성 청계원 나. 안치기간: 안치후 10년
6. 공고기간: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7.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 증명서류(족보, 계적 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십시오.
8.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공고인 영암군 영암읍 교동로16 박 태 흥